

지속가능한 100만 미래 광역도시 도약 집중

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, 신년 브리핑 통해 광역도시·도시개발 분야 7대 역점 시책 제시

전주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종합경 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 등 옛 대한 방지 부지 개발 등 장기 현안 사업을 정상화하고 전략적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100만 광역도 시에 걸맞은 도시경쟁력을 갖춰 나가 기로 했다.

26일 전주시에 따르면 광역도시기반 조성국 신년 브리핑을 통해 '지속가능 한 100만 미래 광역도시 도약 기반 마 련'을 비전으로 한 광역도시·도시개 발 분야의 7대 역점 시책을 제시했다.

7대 분야는 △전주의 핵심허브 MICE 복합단지 조성 △민자유치와 개발 지 원을 통한 상생발전 견인 △효율적 재 개발 및 정주환경 개선 △도시기능 고 도화 및 핵심 개발사업 가속화 △공영 개발 및 공공주택 조성 △주민복지 중 심의 전주형 도시정비 추진 △취약 주 거지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이다.

먼저 시는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이자 경제의 새 심장부가 될 MICE 복 합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 다.

시는 지난해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축조가 완료 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 방지계획 수립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.

뿐만 아니라 옛 대한방지 부지개발 사업도 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과 감리 자 지정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.

또한 시는 '2030 전주시 도시·주거



전주시는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신년 브리핑을 통해 '지속가능한 100만 미래 광역도시 도약 기반 마련'을 비전으로 한 광역도시·도시개발 분야의 7대 역점 시책을 제시했다.

환경정비 기본계획' 타당성 검토 결과 를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 기 반을 마련하고, 조례 개정 등 제도 정 비를 추진한다.

여기에 시는 북부권 도시환경 개선 을 위해 상반기 중 실시실계 검토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공사에 착수 하는 등 전주대대 이전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.

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실시실계 및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해 북부권 주 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확충을 도모 한다.

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 전주 교도소 이전·신축사업의 경우 총사 업비 조정을 위한 적정성 재검토와 실 시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예정으로, 시는 작지마을 이주단 지 조성도 연내 마무리해 주민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.

만경강·백석제 생태탐방로 조성사 업 역시 민·관 협의체 협의를 통해 실시실계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.

시는 체계적인 경영개발을 통한 미 래 성장동력 확보와 공공주택 조성에 도 힘을 계획이다.

미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전주 탄 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오 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52%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, 시는 올해 산업용지 분양을 본격화한다.

여기에 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중 시 상반기 중 지정계획 고시 등 사 전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단지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.

이와 함께 시는 청년 창업인과 중기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하반기부터 팔복동 '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' 공 사에 착수하며 이를 통해 오는 2028년 부터는 임대주택 70호가 공급될 예정 이다.

이외에도 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△전주역세권 △덕진권역 △공암고 일원 △인후반 촌 △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등 주요 도 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, 남노송동·동완산동 새마을을 조성사 업과 낙수정마을·견훤왕궁지구 사업 등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을 기울인다.

김철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장은 "올해를 100만 미래 광역도시 기 반을 실제로 완성하는 원년으로 삼겠다"며 "대규모 도시개발과 체계적 도 시 정비를 통해 100만 광역도시 실현 기반을 공고히 하고,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미래지향적 도시 인 프라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" 고 말했다. /권희성 기자

21개국 주한 외국공관장, 전주 매력 '흠뻑'

지역 특색 살린 음식문화·문화유산 등 선보여

세계 21개 국가를 대표하는 주한 외 국공관장들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 주를 찾아 전주만의 매력에 흠뻑 빠졌 다.

전주시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21개 국가 주한대사를 대상으로 '주한 외국 공관장 초청 행사'를 진행한다.

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요 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주 방문이 전 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도시 전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, 해외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전환점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특히 아시아와 미주, 유럽, 아프리카 등 21개국가를 대표하는 32명의 주한

대사 내외가 지방 도시인 전주를 찾은 것은 이해적인 규모로 평가를 받고 있 다.

시는 이번 행사에서 유네스코 음식 청의도시로서 지역 특색을 살린 전주 의 대표 음식문화를 선보이고, 스포츠 정책과 세계문화정상회의 등 전주의 미래 도시비전을 소개함으로써 다채 로운 멋과 맛이 공존하는 전주의 매력 을 알렸다.

또한 전주를 찾은 주한 외국공관장 들은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, 국립무 형유산원 등을 방문해 천년 역사와 풍 부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전주 의 도시 경쟁력을 현장에서 확인했다. 시는 참여한 외국공관장들에게 2027

년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공 유하며 글로벌 문화도시로서의 비전 을 설명하고, 세계 각국의 관심과 참 여를 독려하기도 했다.

이와 관련 세계지방정부연합(UCLG) 이 주관하는 세계문화정상회의는 문 화와 도시 발전을 연계한 국제적 의제 를 다루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로, 전 세계 도시 정상과 문화·정책 전문가 들이 모여 문화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정 책 협의체다.

시는 오는 2027년 회의 개최를 통해 유네스코 음식청의도시이자 전통문화 자원이 집적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 화하고,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한다 는 구상이다.

이와 함께 각국 주한 대사 내외는

전통 한지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한지의 우수성과 산업적 확장 가능성 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.

이번 초청행사에 참석한 각국 공관 장들은 전주의 문화적 자산과 시민 참 여 기반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.

시는 이번 초청행사를 통해 한옥마 을과 전주 음식, 한지, 공예 등 지역 고 유 자원의 경쟁력을 주한대사들에 게 직접 선보임으로써 전주관광 브랜 드 가치를 한층 높인 것은 물론, 전주 가 관광·경제 교류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 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우범기 전주시장은 "이번 주한외국 공관장 초청 행사는 전주의 고유한 문 화자원과 산업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, 지속가능한 국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/권희성 기자

전주시, 청년부부 결혼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

전주시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청년들 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결혼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. 시는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 담을 완화하고,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식을 위한 스튜 디오 촬영·드레스·메이크업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'청년부 부 결혼비용 지원사업'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.

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청년부부로, 혼인신고일 기 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8세 이상 39 세 이하여야 한다.

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주시

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, 혼인신고 이 후에는 부부 모두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.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20% 이하이다.

올해 지원 규모는 총 60여 쌍으로, 시는 오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통합지원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.

최종 선정된 부부에게는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·드레스·메이크 업 비용을 심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.

특히 시는 전주 공공예식장 지원사 업인 '웨딩잡주' 참여 부부 10쌍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. /권희성 기자

'전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' 본격 가동

전주시가 도시의 미래를 바꿀 추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 에 나섰다.

시는 26일 한국전문화전담 세미나실에서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을 단장 으로 관련 실·국장과 외부 전문가, 출연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'전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'의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.

추진단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수립(2026년) 및 본격 시행 (2027년)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, 공공기관 추가 유치가 확

정될 때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.

이날 첫 회의에는 △금융·신산업 △문화·체육·관광 △도시·건설 △농생명·식품의 4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의 유치 당위성 을 확보하고, 중점 유치 대상 기관과 이전 대상 부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를 펼쳤다.

시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유치 타당성 논리를 구체화하고, 향후 공공 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등 다 각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. /권희성 기자

전주시, 수소산업 활성화 위한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

전주시는 26일 캠퍼스기술원 창업 동에서 전주지역 수소 관련 기업 대표 와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 관계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기업의 현장 목 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
간담회는 시가 추진 중인 수소산업 관련 주요 사업을 기업들과 공유하고, 수소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 및 수소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 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. 이 자리에서 시는 △수소자동차 구 매지원 △수소충전소 운영지원 △수

소수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△수 소놀이체험관 건립 등 수소 관련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.

또한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애로사항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 는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청취하는 시간도 이어졌다.

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을 바탕으로 수소기업과의 협력체계 를 공고히 하고, 기업 현장의 목소리 를 반영한 수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. /권희성 기자

전주시,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 발대식

전주시가 기업의 세부 부담을 완화 하고, 기업 친화적인 세부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맞춤형 세정 서비스 를 제공키로 했다.

시는 26일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 퍼런스룸에서 '기업과 함께하는 맞춤 형 세정 서비스'의 발대식을 가졌다. 맞춤형 세정 서비스는 기업의 다양 한 세부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

하고,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소통하는 맞춤 형 세부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 이 있다.

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되며,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 서비스 홍보와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특별 상담 신청서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. /권희성 기자

전북의 역사·문화 유산

옛 전북의 구심점

전라감영

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 로, '완영'이라고도 불렀다.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 명 '완산'에서 나온 말이다.

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·북도와 제주 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,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 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 에 자리했다.

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 이 들어섰고,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 었다.

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 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.

전주매일 캠페인

선화당

전라감영의 재창조

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, 2009년 전 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,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.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 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.

복원 범위는 전체복원, 부분복원,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,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 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.

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 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 원했다. <글: 전주시 제공>

관공각

내아